

# 순창군, '나필양 운동' 추진

### '나보다 더 마스크가 필요한 분께 구매 양보' 의미로 사재기 방지 등 참여 당부

순창군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사재기를 방지하고 군민간 배려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나필양 운동'을 추진한다. '나필양 운동'은 일명 '나보다 더 마스크가 필요한 분께 구매를 양보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실시하는 카드를 꺼내 들며 마스크 매점매석과 사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내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마스크 수요보다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점에 가장 큰 원인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확산으로 사재기 하려는 사람들의 심리 또한 함께 작용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기저질환자나 노약자 등 나보다 더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구매를 양보하자는 마음을 갖자는 의미에서 '나필양 운동'을 추진하고자 나선 것.

특히 순창군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 마스크 구매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짧은 층들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군은 우선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나필양 운동'을 전개해 군민 전체로 확



순창군이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사재기를 방지하고 군민간 배려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나필양 운동'을 추진한다.

산되도록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마스크 구매를 양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질병관리본부의 마스크 사용에 대한 개정된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면 마스크 사용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도 점차 줄여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흐르는 물에 30초이상 손씻기, 기침할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코로나19 감염

병 확산이 쉽게 사그라들고 있지만, 이럴때 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나필양 운동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마스크 5부제 판매가 실시되어 군민들은 신분증상 출생년도 끝자리 수가 1·6년인 경우에는 월요일, 2·7년 화요일, 3·8년 수요일, 4·9년 목요일, 5·0년 금요일에 근처 약국을 방문해 매주 1인 2매 한도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이송대책 만전

### 남원의료원, 대구 경증환자 11일 21명 이송·12일 30명 추가 이송

남원시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실이 없어 자가격리 중인 경증환자들이 오늘부터 남원의료원으로 이송된다고 11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의료원은 총 65병상을 확보한 가운데, 11일 코로나19 대구 경증환자 21명을 이송하고 12일 30명을 추가 이송한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조속한 쾌유를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재난상황임을 감안, 막연한 불안감보다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긍정적인 반응과 응원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먼 곳에서 치료할 곳이 없어 오는 만큼 꼭 완치되기 바랍니다.) 등을 의료원 곳곳에 게시하고 있다.

이병원 고죽동 9통장은 "황죽마을은

의료원과 최 근접한 마을로 마음은 불안하지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환영 현수막으로 응원하고, 아픔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시 차원에서 차단 및 방역에만 신경써주지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원의료원측은 "지역거점 최일선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19 치료와 응급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순례 남원시보건소장은 "대구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이송계획에 따라 1주일 전부터 의료원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해 왔다"며, "시민불안요소를 잠식시키기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의료진들도 병동 및 기숙사를 활용해 의료원에 거주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읍·여성의용소방대, 마스크 무료 배부

임실군 임실읍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실군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심미혜)와 손잡고 마스크 무료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실읍은 지난 10일 읍사무소 직원과 심미혜 대장을 비롯해 임실군여성의용소방대 대원들과 함께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읍내 주민 밀집 지역인 아파트, 상가 및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용 마스크를 배부했다.

마스크 배부는 군에서 군민들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임실읍은 지난 9일 1차로 임실읍 지역 1,437세대를 대상으로 직원들과 이

장들이 배부를 완료한 데 이어 10일 2차로 소재지 내 아파트와 일반세대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임실군여성의용소방대 대원 27명의 도움을 받아 담당마을 직원들과 1,664세대에게 전달됐다.

군이 특별대책으로 추진한 마스크 무상배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주민들의 외출차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예방수칙 홍보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임실=진흥영 기자

# 남원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홍보

남원시가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 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농지 경작 규모에 따라 0.5ha 이하 농가는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역진적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며, 공익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주민 정보, 농지정보 등)를 변경하고 현행 화해야 한다.

2020년 공익직불금 등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청해야 하고,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장학재단 이사회 개최

남원시가 주관하고 있는 (재)순창장학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해 2020년 순창인재 장학생을 선발했다.

올해 선정된 장학생은 129명으로 우수장학생 56명, 특기장학생 36명, 보람장학생 17명, 희망장학생 20명이며, 고교 우수신입생에게는 최고 500만원에서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장학생은 200만원, 특기장학생 및 보람·희망 장학생에게는 100만원 등 총1억9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화주 순창장학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전염예방 및 확산 방지에 따른 조치로 당초 계획했던 장학증서 수여식을 생략하는 대신 선정된 학생들의 소속 학교장을 통해 장학증서를 전수할 예정"이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요청했다.

순창장학재단은 1995년 설립, 순창향 학교특색 프로그램지원 및 지역인재양성과 으뜸인재육성사업 등 면학분위기 조성 사업을 통해 남원 교육발전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14년도부터 서울 남원장학수을 운영,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등 지역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읍행정복지센터 노인회 임원과 간담회 개최

순창읍행정복지센터는 11일 읍분회 경로당에서 노인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읍 경로당 노인회 회장을 비롯 노인회 임원 및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읍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인회 협조, 경로당 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회 순창읍 노인회장은 "순창군과 순창읍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해준 진영 무 읍장에게 감사사를 전한다"며 "노인회에서도 순창읍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항상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 유도·쌀 과잉문제 적극 대응

임실군이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군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를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내용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최소 1회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벼 대신 타작물을 최소 1,000㎡ 이상 재배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득감소를 보전해 준다.

올해 군은 논 타작물 목표면적을 82ha로 세우고, 2억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료는 ha당 430만원이 지원되며, 일반작물과 쪼갬작물은 270만원, 두류는 255만원, 휴경 210만

원씩 차등 지원된다.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사업에서 제외된다.

특히, 논에 콩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을 하기 위해 자체사업에 예산 10,000천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논에 콩 재배 농가에 콩 종자 및 멀칭비닐도 지원(단가 645천원/ha, 보조 50%, 자담 50%)한다.

사업신청은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신청서 1부와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 내 많은 농가들이 타작물을 재배해 농가소득을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 남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안전관리업 설명회 개최

남원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대응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자가격리자 안전관리업 설치·보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와 자치단체장이 자가격리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게 되며, 자가격리자 용과 전담공무원용 2가지로 자가격리자가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 통보하는 기능과 격리상태 이탈 시 알림기능,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연결기능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이 개발됨에 따라 1차로 139명에 대하여 앱 설치를 완료하기로 하고 원활한 앱 설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